

SBS 사우 3대 덕목  
서로 이해하는 마음  
서로 존경하는 마음  
서로 배려하는 마음

제 13호 2010년 1월 1일

# SBS 사우회보

발행처 SBS사우회 150-89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 태양빌딩 605호 Tel 02)783-0590~1 Fax 02)785-9805 E-mail sbssau@hanmail.net 발행인 임형두 편집인 이시권 편집디자인 이레기희

## 〈새해 인사〉

## 바라는 소망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인년(庚寅年) 호랑이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회원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건강과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SBS 사우회가 3년을 넘겨 알차고 사랑받는 모임체로 발전하고  
있음은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합심 노력하여 일구어낸 값진 결과입니다.  
SBS 본사가 늘 당당하게 앞서 나가는 것처럼 사우회 역시 지속적인 발전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힘과 용기의 상징인 호랑이처럼 기운찬 사우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월1일 새 아침에  
사우회장 임 형 두

## 화기애애했던 “사우회 송년의 밤”

- 개국스타 자니윤, 오지명, 김창숙, 이숙영 등 초청대

2009년도 “사우회 송년의 밤”이 12월 22일, 시청앞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엄광석 사우의 진행으로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사우회 행사 중 가장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창립 3주년을 지나면서 회원 모두가 날찌를 꼽을 정도로 관심을 가진 행사여서인지 3시간여에 걸친 만남의 시간이 웃음 가득 채워졌다. 이번 “송년의 밤”은 SBS 창사 당시 각종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했던 스타들도 초청되어 그 어느 해보다 뜻 깊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윤세영 사우회 명예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보고 싶은 얼굴이 많았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많이 참석해 기쁘며, SBS 사우간의 교류와 의사소통의 역할을 사우회가 대신해 주는 노고에 감사한다”면서 사우회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나타냈다. <올해를 빛낸 SBS맨> 시상 및 인기 가수들의 무대와 만찬은 물론,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 등 우리의 “송년의 밤”은 겨울밤을 훈훈하게 녹이는 열정의 모임이었다.



## “올해를 빛낸 SBS맨 상” 2개팀 수상영예 안아

- 본사 스포츠국 제작부, 아트텍 영상제작팀

사우회가 제정하여 매년 현직 사원에게 시상하는 <2009년도 올해를 빛낸 SBS맨> 수상자로 본사 스포츠국 제작부와 SBS 아트텍 영상제작팀이 선정되어 ‘송년의 밤’ 행사장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스포츠국 제작부(부장 신지식)는 WBC 중계방송,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세계 청소년 축구 단독중계를 비롯하여 김연아 선수출전 ISU 경기 단독중계 등을 통해 최고의 시청률을 달성, SBS 스포츠의 진면목을 발휘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SBS아트텍 영상제작팀(팀장 김상일)은 단결된 팀워크와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SBS 영상 이미지 제고에 노력한 공로와 각종 스포츠 중계는 물론, 쇼 프로그램 시청률 향상에 기여한 노력이 인정되어 선정되었다. 이날 시상식에서 임형두 사우회장으로부터 상패와 상금 50만원이 각각 전달됐으며 이번이 세 번째 시상이다.

## 동호회, 2010년에는 이렇게...

### 골프동호회

매년 봄, 가을에 2번 개최하는 대회의 횟수를 늘릴 방안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동호회원 수가 많은데 비해 참가할 기회가 적어 늘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운동을 하시겠지만 사우회 모임은 더욱 아끼자기하고 푸짐하여 서로가 만나고 싶은 동호회로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입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단련되는 골프야말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필요한 운동이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으실 겁니다.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회장 이충기 / 총무 천영일 올림

### 낚시동호회

2010년 <낚시동호회>는 大漁 낚는 행운과 함께 살아 가시는 생활에서도 越尺하시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회원 확대에 힘써 많은 사우들이 모이고 싶어하는 동호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봄에는 바다의 갯바위 낚시를, 가을에는 조황 좋은 민물 낚시터를 찾아 모두가 진한 손맛에 빠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동호회>가 더욱 발전하고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우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부탁드리며 새해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회장 임종철 / 총무 김명철 올림

### 문화예술동호회

더 많은 사우들이 참여하도록 회원수를 늘리는 일, 특히 젊은층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람행사의 종류를 넓혀겠습니다. 멋진 음악회도 가고 싶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 모여 가능한 노래도 부르고... 뭐 이런 낭만적인 모임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모임에 따라서는 부부동반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경 다음의 또 다른 맛은 뒷풀이에 있기 때문에 먹걸이 개발도 필요하고...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바다 건너로 넓혀지는 의견도 있더군요. 월드컵 구경을 가져오고 하는 회원도 있던데 일단 희망사항으로 접수해놓았습니다.

회장 이재명 / 총무 김정민 올림

### 바둑예술동호회

바둑에는 수많은 격언과 가르침이 있지만 특히 요즘 들어서는 기도오득(棋道五得) 가운데 득호우(得好友)라는 말이 제일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봄, 가을 두 차례 정기대회와 SBS 본사와의 합동바둑대회를 열고 있는데 최근에 원로 대선배 들께서 적극 참여하여 창사 초기의 기억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당시를 상기하면 가슴 벅차고 득호우를 실감하게 합니다. 올해는 정기대회 이외에도 시간이 허락하는 한 수시로 바둑 모임을 주선할 계획임을 밝히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회장 엄광석 / 총무 박오중 올림

### 트레킹동호회

경인년 새해엔 더욱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쾌적한 코스를 개발하려 합니다. 그러자면 서울 근교의 걷기 좋고 아름다운 트레킹 코스를 찾아내어 사전 답사하는 일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또한 분기별로 1박 2일 코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는 사전에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존중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월 셋째주 토요일 10시에는 ‘창덕궁 후원(비원)을 걸을 예정입니다. 아름답게 늙는다는 건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장수의 비결은 마음 비우고, 적게 먹고, 많이 걷는 것입니다. 올해도 많이 걸으시고, 건강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회장 박간삼 / 총무 이찬휘 올림

사우 招待詩

나는 호랑이로소이다

박건삼 사우



하늘이 처음 열렸을 때  
난 처음으로 하늘을 우러러  
그리고  
모든 산맥들을 향해  
백두대간이 찌렁거리도록 울었다  
그리고는 다시 울지 않았다  
사람들은 나의 우렁찬 목소리를 듣고 싶어 했지만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 후 몇 천만년의 광음이 흐른 뒤  
단군왕검이 나라를 열었고  
다시 몇 천 년의 세월이 흘러  
이 땅에 광개토대왕이 나타나  
만주벌과 시베리아까지  
그의 말 발굽소리에 놀라 깨었다  
그로부터 천여 년의 세월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다  
세종대왕(世宗大王)께서 태어나던 해  
인왕산까지 내려와 포효했지만  
충무공이 노량해전에서 전사 할 때  
난 숨죽여 울었다

조선이 국권을 잃고 암울한 시절  
하얼빈의 열하루 동안  
고독한 영웅의 의로운 행동을  
가슴 조이며 지켜보았다  
일곱 발의 총성  
침략자가 쓰러졌다  
하늘이 우릴 버리지 않아  
그 무렵  
찌들고 척박한 이 땅에  
'호암(湖巖)'과 '아산(峨山)' 그리고 경상도 산간마을에  
박기(朴翊) 성 가진 사내아이를 보내 주셨고  
대한민국에 서기(瑞氣)가 어렸다

악인들의 전성시대에  
나는 햇빛만을 쫓아  
부끄럽게도  
병든 고양이처럼 웅크리고 앉아 졸고 있었지만  
이제 난 더 이상 병약한 고양이가 아니라  
까마득한 날 잊어버렸던 신화를 되찾고  
백두산 호랑이의 위용을 갖춰  
크게 한번 천하를 향해 포효할 것이다

보아라  
2010년 경인년 새해  
나는 동물원에 갇힌 호랑이가 아니라  
푸른 정기 내 뿜으며 백두대간을 뛰어 올라  
시베리아로 달려가  
까마득한 날, 하늘이 처음 열렸을 때  
바로 그 날의  
그 첫 울음과 똑 같은 목소리로 외치고 싶다  
한반도가 찌렁거리도록  
아니 지구축이 흔들거리 바다가 넘실거리도록  
태평양 물결이 넘쳐 나도록  
아!  
나는 그런 호랑이가 되고 싶다.

사우 등정



**윤 세 영**  
12월 10일, 서울대학교로부터 2009년도 발전공로상을 수상했다. 윤세영 사우회 명예회장은 1961년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한편, 사단법인 강원도민회로부터 '2009년 자랑스러운 강원인상'에도 선정되었으며 시상식은 1월 1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다.



**하 금 열**  
제21회 중앙언론문화상(중앙대학교 제정) 방송·영상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10월 9일 중앙대 개교 91주년 기념식에 열렸다.



**김 기 성**  
10월 20일, 본사에서 퇴직하고 사우회원이 된 김기성 부국장이 SBS미디어홀딩스와 세계적 경제전문채널인 CNBC의 합작 채널인 (SBS CNBC)의 신입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SBS CNBC)는 12월 28일 첫 방송을 내보냈다.



**배 성 례**  
10월 20일, 본사에서 퇴직하고 사우회원이 된 배성례 부장이 서울예술대학 교수 겸 대외협력처장에 부임했다.



**이 관 형**  
(SBS CNBC)의 기술위원으로 임명됐으며, 서울예술대학 외래교수로 강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 장 수**  
11월 5일 개봉한 영화 "내눈에 콩깍지" 감독을 맡았다. 이 영화는 텔레시네마 7 프로젝트 작품인데 이는 신 한류를 기획하기 위하여 한-일 합작으로 만든 글로벌 프로젝트 7편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 태 흥**  
11월 9일, (주)참도원 대표에 취임했다. 예능PD 출신으로 올리브나인 프로덕션 부사장으로 일하다가 황도백과 황도비누를 생산하는 회사로 옮겨 새롭게 출발하는 기분과 각오가 남다르다고.



**이 무 열**  
최근, 토목건설 전문회사인 「동기 DH 개발(주)」 사장에 취임하여 새로운 각오로 일해 보겠다는 의욕이 생긴다고.



**김 수 웅**  
1월 1일, 한국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 (SIGNIS/korea) 회장에 취임한다. 시그니 스킴리아는 방송, 영상부문, 케이블, 위성, 인터넷 서비스와 각종 콘텐츠 산업, 광고부문 등 미디어 상호간의 협력 증진과 통합작업을 목표로 2002년에 설립된 단체이다. 한편 2011년 6월까지 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안 국 정**  
동아일보사의 방송설립추진위원회 공동 위원장에 임명됐다. 종합편성 채널 사업자 신청이 예상되는 동아일보는 안국정 사우회 고문의 영입이유를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으로 한국 방송 발전에 기여 한 능력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문 배**  
(주)더와이엔비 대표인 김문배 사우가 11월 10일, (사)독립제작사협회가 독립 제작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제정하여 올해로 열 번째 맞이하는 2009 KIPA상 시상식에서 SBS「생활의 달인」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조 한 선**  
(주)리얼리티비전 대표인 조한선 사우가 2009 KIPA상 시상식에서 SBS 특집다큐「'독도, 생명의 땅」으로 방송사 추천 작품상을 수상했다.



**박 준 영**  
세 번째 시집 "얼짱, 너는 꼬리가 예쁘다"를 시 전문 출판사인 '시와 시학사'에서 발간했다. 무위자연을 향한 상생의 시인으로 불리는 박준영 사우의 시집에는 최근 3년간 쓴 65편의 시 외에도, PD시절 즐겨 써 온 만화영화 주제가 38편 중 "개구리 왕눈이" 등 10편이 부록으로 실려 있다. 또한 12월 17일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는 제17회 불교언론문화상 '불교언론인상'을 수상했다. 방송언론 불자회 활성화와 사회활동에서 펼친 불교계의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됐다.



**이 문 행**  
수원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인 이문행 사우는 12월 9일, 한국문화콘텐츠산업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신규 종합편성 채널은 지상파 방송도 케이블 채널도 아닌 제3의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제 발표를 통해 주장했다.

회비 납부자(10월~12월 입금)

- 연회비 내신 회원 (2만원)**  
김경환, 김상진, 김 양, 김운태, 김중혁, 김혜란, 김홍덕, 문주우, 민충기, 박상준, 박지용, 백종우, 송석형, 심종환, 오종록, 우선균, 유명란, 유용준, 윤은경, 윤인섭, 이갑우, 이동훈, 이영혜, 이취형, 이혜성, 장건철, 장동훈, 장영희, 전용학, 전정근, 정근기, 정동천, 조용호, 조한선, 한만균
- 중신회비 내신 회원 (20만원)**  
김병욱, 배성례, 엄경섭, 오진곤, 유철용, 윤희훈, 이계진, 이선명, 장윤정, 장영국, 정건일, 정영덕, 정웅채, 조항현
- 협찬금 내신 회원**  
오광수(10만원), 이남기(12만원)

경 조 사 항

- 부 음  
9월 23일 양승봉 모친상, 11월 28일 장건철 빙모상
- 결 혼  
10월 8일 신영애 장남, 10월 13일 김근수 장녀  
10월 29일 엄효섭 차녀

고희 축하금 전달(20만원)

박준영

■ 회비납부 계좌 ■  
우리은행 1006-901-277104  
예금주 : (사) 에스비에스사우회

社友 인터뷰 -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정건일 사우



## 월드컵 참가 슬로건이 “ONCE AGAIN 2002”입니다

방송사 근무시절 스포츠 전문기자로 명성을 날렸던 정건일 사우가 2009년 1월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직을 맡아 그 어느 때 보다 활기찬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마침 금년은 축구의 세계 최대 행사인 월드컵이 열리는 해이어서 남다른 활약상과 열정이 기대된다.

■ 금년은 경인년 호랑이해이다. 대한축구협회는 호랑이가 앞으로 달려오는 모습을 엠블럼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많은 동물 가운데 왜 호랑이인가?

- 언제인가부터 세계적으로 축구대표팀의 엠블럼은 국기 대신 자기 나라의 특징을 디자인 하기 시작했으며, 우리는 2002년 월드컵 때 종전의 태극마크에서 호랑이를 엠블럼으로 변경해 유니폼에 부착하기 시작했다. 한국 축구에 대하여 다른 나라로 부터 “빠르다” “투지가 있다” 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호랑이가 그런 우리 축구의 기백과 잘 맞아 떨어진다고 봤기 때문이다.

■ 1994년부터 96년까지 대한축구협회 이사를 지냈고 98년부터 2005년까지는 한국 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직의 경력도 있었다. 이제 협회 부회장이 됐는데 6명이나 된다. 각기 역할이 다른것인가?

- 그렇다. 4년 임기이며 축구협회의 살림살이와 하는 일의 규모가 크다 보니 여러 명의 부회장이 필요하다. 월드컵 같은 국제경기가 있을 때는 프로 축구연맹으로부터 선수 차출 등의 코디네이션이 매우 민감한 문제인데 나는 그 일을 주로 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가 2022년 월드컵 유치신청을 했는데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회장이 있고, 기술적인 면을 맡은 분, 학교 축구가 많이 달려져 그 일의 정착을 담당하는 분, 행정을 주로 맡는 분들 6명 모두가 역할이 다르게 주어져 있다.

■ 1972년~1991년 KBS, 1991년~1998년 SBS 근무 경력 중 기억에 남는 일들을 회상한다면?

- KBS 시절 1983년에 한국의 프로축구의 태동에 관여하여 프로축구 초대 PD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88년도 서울올림픽 방송본부 제작기획부장으로 국제 신호제작의 표준을 만들었던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SBS으로 옮겨와서는, 당시에는 좀 생경스럽게 골프중계를 제안했는데 귀족 스포츠라는 이유로 찬성을 하지 않을 때 윤세영 회장의 허락으로 SBS스포츠의 간판 프로그램이 됐으며 그러한 바탕으로 한국이 골프 최강국이 되는데 일조했다는 자부심이 남다르다. 개국 당시 밤 11시대는 거의 죽은 시간대라고 여겼는데 불링, 당구, 권투 등 스포츠 시간대로 편성하여 성공했던 기억은 지금도 뿌듯한 자랑거리로 삼고 싶다.

■ 금년은 월드컵이 열리는 해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고 중요한 해가 될텐데, 월드컵에 거는 기대는 어디까지인가?

- 4강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은 누구나 잘 안다. 그러나 잘 분석해 보면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열려 있다. 역대 전적은 그리스와는 1승1무, 나이지리아에는 2승 1무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16강 진출승수는 1승 2무 또는 2승1패면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붙는 3팀 모두 예선을 겨우 겨우 통과한 팀이다. 협회의 슬로건을 <ONCE AGAIN 2002>로 정한 것이 그렇게 터무니없진 않다.

■ 4강을 바라보는 또 다른 요인도 있는 것인?

- 물론 있다. 스포츠에서 빼 놓을 수 없는 팀워크가 그 첫 번째이다. 과거에 히딩크 등 외국인 감독을 영입한 적도 있지만 이번에는 순수 국내 코칭스태프를 끌고 나가게 된다. 도전정신, 언어 소통, 감정 조절 등 같은 국민으로서 소통되는 무언의 커뮤니케이션은 분명히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믿는다. 선수들의 식사를 맡은 주방팀을 최상의 멤버로 짠 것도 한 요인이 될 것이다. 1월에 오스트리아에서 전지훈련 후 5차례 정도 평가전을 가지며 아르헨티나와의 경기를 위해 현지 1750미터 고지 적응 훈련 등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다.

■ 늘 바쁜 활동을 하며 살아왔는데 가정생활은 어떤가?

- 처와 1남 1녀를 두었는데 아이들은 모두 출가하여 현재 손녀만 3명이 생겼다. 이 기회에 고백하건데 방송기자라는 핑계로 늘 바쁘게 지내다 보니 아마 우리 집에서는 0점 남편 0점 아빠라고 할 것이 분명하다. 그런 미안한 마음을 손녀들 돌보는 것으로 갚고 있다. (웃음)

인터뷰/ 이시권 편집장

이 社友가 사는 法



## 평생 직업이 취미와 일치한 복 받은 인생이라고

글/ 김인동 사우

오래 살다 보니 얻게 되는 프리미엄으로 알고..

만인이 부러워하는 그것을 나는 누렸다고 생각하니 팔자 좋은 일생이었다.

올해로 막 팔십 문턱을 밟다보니 전철 노약자석에 편히 앉아 두리번 거릴때면 세상은 오래 살아 볼만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늙은이 대접 받는 나라가 지구상에 많지 않을거라는 생각과 함께..

### 70대는 내게 가장 멋진 세월

적잖은 친구와 가족을 먼저 보낸 이 나이에 여전히 나는 파이판 아침 하늘을 바라보며 어젯밤에 계획한 오늘 할 일을 순서대로 그려본다.

자유인이 되려면 먼저 외부환경으로 부터의 자유 "liberty" 즉 기아와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고, 다음은 내부의 자유인 마음의 자유 "freedom"을 찾아 유머가 있는 삶을 누릴때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늙은이가 젊은이와 공존하려면 서로가 짐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걸 잘 알고 있다. 나는 이 황혼의 시대를 독립과 자유인

으로 살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곤 한다.

지금 생각하면 내 두뇌의 암기력은 왜 그렇게도 유난했는지.. 장황한 역사 얘기가 연대 외우기는 끝내 재대로 못했지만 물리, 수학의 법칙이나 정리는 한번 들으면 결코 잊지 않았다. 이런 암기능력이 방송 기술인으로 또한 속없는 단순인으로 늙게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지금이 한없이 즐겁다.

70대는 내 생애에서 가장 멋진 시절이었다. 오랫동안 방송 송신시설에서 근무 하다 보니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의 멋을 알게되어 사진 찍는 버릇이 생기고, 능선따라 걷다보니 산타기가 취미되고, 그러자니 지형도가 내장된 GPS가 필수품이 되고... 이제는 곳곳에 조성된 조상묘지 명당에 관심 갖게 되고 풍수 강의 듣다보니 양택풍수(집터)책도 사보고 있고... 이것들을 공부하니 동양철학의 오해에 몰입해 가고 있다.

또한 직장에서 필수도구였던 PC를 잘 다루었던 덕분에 인터넷에서의 메일 검색, 영상편지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면서 아침 저녁의 일과는 언제나 바쁘다.

그런데 세상 일이 순탄하기만 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니까? 외이들 늙 앞세우고 났는데 거기가 얼마전엔 마누라까지 먼저 가네요. 그러저럭 마음 잡을만 했는데 최근에 내 돈 빌려주고 받고 났더니 사해행위 취소(詐害行爲取消)라는 소송을 당했네요. 세상 참 웃기지요. 이런것을 보고 산전수전 겪는대지요? 이런게 다 오래 사는 자에게 주는 프리미엄이겠지요?

나는 자연 속에서 하는 일마다 취미생활로 이어지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제부터는 상산약수(上善若水; 노자의 사상에서 물을 이 세상에서 으뜸가는 선의 표본으로 여기어 이르던 말 - 편집자註)의 구절을 삶의 지표로 삼고 유유자적 살리라. 내일을 걱정 말고 분단생사(分段生死) 아닌 변역생사(變易生死)의 생사관으로 바뀌 보련다. 숙주머니엔 핸드폰, 카메라는 둘러매고, GPS와 콤팩스는 웃웃 주머니에 이렇게 간편한 등산 배낭에 스틱 들고나면 발걸음도 가볍게 전철과 마을버스 갈타며 이 좋은 날씨 만끽해 본다. 새로움을 찾아서... 저 늙은이 또 어대가노?? ...

단 신

### 사우회 미래기획팀 발족

사우회원 연령별 분포조사 결과(사우회보 12호 참조)에 따라 지난 12월 3일 40대와 50대 회원을 중심으로 한 미래기획팀을 구성하여 첫 회의를 가졌다. 미래기획팀원들은 수시로 만나 사우회 발전방향을 논의, 의견을 개선하는 일을 맡게 된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가나다순, (부편) 강인식(편성), 김명철(행정), 김승호(영상), 김정민(미술), 문정수(드라마), 신선미(편성기획, 女) 심중환(아나운서), 이기진(예능), 이찬휘(보도), 이창섭(보도), 장동철(기술), 조한선(교양) 천영일(스포츠) 이상13명.



### 이찬휘의 건강다이제스트

#### 전립선암 비상

남성들에게는 전립선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방광 바로 아래에 호두처럼 생겼고 크기도 호두 알만 한 것입니다. 하는 일은, 정액을 만들어 고환에서 올라온 정자를 섞은 뒤 사정할 때 강력한 속도로 여성의 자궁으로 마치 물총처럼 발사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정액은 정자 가 난자를 향해 잘 헤엄쳐가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전립선에 암이 생긴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남성 암 가운데 9위였으나 2004년에는 폐암, 위암에 이어 3위, 2008년에는 위암을 제치고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남성들의 암 가운데 전립선암이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원인을 서구화된 음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기 같은 동물성 지방질



이 많은 음식이지요. 특히 전립선 암은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발견 된 후에는 이미 암세포가 다른 곳으로 전이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전립선 암은 초기에 발견할 경우 쉽게 치료되고 재발율도 매우 적은, 그러니까 치료 성과가 매우 좋은 암입니다. 그러나 전립선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 된 뒤 늦게 발견되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의 여성들은 유방암, 남성들은 전립선암을 적어도 1년에 한번씩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립선 암화에서는 9월을 전립선의 달로 정하고 남성들에게 '블루 리본'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조기 검진으로 암을 빨리 발견해 건강하게 살자는 의미입니다. 저도 빨리 검진을 받아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드실 때 반드시 채소를 꼭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예방 효과가 많다고 합니다.

### 본사 소식

#### SBS 창사 20주년 기본 엠블렘 확정

2010년도 'SBS창사20주년'을 기념하는 기본 엠블렘이 확정됐다. 3개월 동안의 디자인 과정을 거쳐 확정된 20주년 엠블렘은 기존의 CI 로고 동그라미 앞에 숫자'2'자의 부드러운 면서도 역동적인 이미지가 결합된 형태이다. SBS 편성팀 내 비주얼 이미지 팀이 주축이 되어 진행했으며, 1월 초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SBS 창사 20주년 엠블렘은 1년 동안 창사 20주년 관련 ID와 SPOT 제작은 물론 각종 행사 사인류, 차량, 포장, 서식, 홍보 기념품류 등에 응용된 형태로 사용될 예정이다.



### SBS 패밀리 소개 - ① SBS 인터내셔널

1992년 3월 SBS의 미주법인으로 설립된 SBS인터내셔널은 SBS 프로그램을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4년부터는 미국 최대 위성사업자인 DirecTV와의 계약으로 24시간 SBS 채널을 방송하는 한편, 2006년 10월부터는 드라마채널인 SBS PLUS 채널을 런칭하였다. 또한 미주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모든 SBS 콘텐츠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다. SBS 인터내셔널의 또 다른 중요업무는 스포츠 중계권 구매업무이다. 그동안 국제적으로 명성있는 많은 스포츠 중계권을 확보하여 국내의 시청자들에게 수준 높은 경기를 선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LA 18(1976년 설립되어 260만의 아시안 소비자가 살고 있는 남가주에서 12개국어로 방송하고 있는 최고의 아시안어TV 방송국)과 장기 계약을 통해 LA 한국 커뮤니티에 SBS의 프로그램들을 공급하게 되었다. SBS 인터내셔널의 전상열 사장은 "지난 30여년 동안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고 지역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 해 온 LA 18을 통해 SBS의 우수 프로그램들을 방송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SBS는 앞으로 미국에서 LA 18과 함께 한인의 목소리가 되도록 일할 것이다." 라고 힘주어 말한다. SBS인터내셔널의 홈페이지는 www.sbs-int.com이다.



SBS개국 당시부터 미주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 전상열 사장



24시간 DirecTV, Time Warner Cable, Verizon FiOS TV 등 위성, 케이블, IPTV를 통해 북미지역에 인기있는 SBS 드라마, 예능, 교양, 스포츠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SBS** 채널은 24시간 방송되는 종합채널로써 다채롭고 흥미로운 드라마, 재미있는 버라이어티쇼, 그리고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및 보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교양, 정보, 토크쇼, 다큐멘터리 및 각종 기획 프로그램들의 다양한 콘텐츠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SBS Plus** 채널은 다채널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종합 엔터테인먼트 채널로써 기존 SBS의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과 스포츠 프로그램을 새로운 편성으로 재구성한 채널입니다.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들과 여러장르의 스포츠들이 함께 어우러져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드리며 과거 SBS가 탄생시킨 수많은 히트 드라마들을 영어 자막과 함께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3530 Wilshire Boulevard Suite #1000 Los Angeles, CA 90010 U.S.A  
Tel: 213-381-2121 www.sbs-int.com